

전북도 '1기업-1공무원 전담' 추진 상황

기업 애로해소 전담공무원제 정착화

전북도가 도내에 입주한 기업과 새롭게 투자유치로 이따를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전라북도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기업들의 호평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일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의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 14일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해소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 이래 전담공무원이 기업을 방문해 각종 규제사항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430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공장 전력을 9.2km 떨어진 군공변전소에서 공급받을 경우 공사가 92억원이나 소요에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데다 신속공급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수차례 방문·실뚫한 결과 신속공급장에서 불과 2.3km에 있는 비음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게 함으로써 66억원의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도와 신속공급이 제때 가능해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 애로해소 브리핑을 갖고 있다.

**기업 애로사항 처리에 역량 집중 최우선 처리... 기업 호평
경쟁비 수십억 절감·원자재 도내 수급 등 모범 해결사례
최소 1년 소요 단기·중장기 사항도 해결될 때까지 집중 관리
김관영 도지사 "기업들 전북에서 제2전성기 맞도록 할 것"**

도는 전담공무원을 통해 접수된 애로사항 430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인력 수급 문제 95건을 비롯해 자금 조달 74건, 마케팅 등 판로개척 47건, 제도개선 43건 등의 순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같은 기업 애로사항 처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430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업유치지원실장을 기업애로해소 TF총괄단장으로 기업애로해소 지원단 전직을, 도청 34개 부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인 함께 발빠르게 움직여 138건을 완료 처리했다. 실제 군산 소재 성일하이텍은 신속

전북도는 자금·인력에 대한 애로를 가장 많은 기업들이 호소해 오며 따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신청차차 및 방법,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고 기업이 자금을 신청하고 인력을 채용할 때까지 피드백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한 애로사항이 해소되기까지 최소 1년 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원주테크노밸리 산내 내 입주업체 변경 요청, 고급리로 인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원금상환 유예, 특장차 전문단지 내 전신주 높이 문제 해결, 외국인 근로자 장기

근속을 위한 제도 개선 등 166건으로 집계했다.

1년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중장기 사항으로는 출퇴근 셔틀버스 등 편의 제공 지방투자보조금 지급기준 개선, 축산물 위생검사 통합운영,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기업당 한도 확대, 진출입로 확장, 대중교통 증편,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99건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전신주 높이 조절 등 시·군의 협조가 수반되어야 하는 다양한 애로에 대해서는 기업의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긴밀하게 협력

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에 진행상황을 안내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이번에 접수된 430건 뿐만 아니라 매일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접수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방문면담-처리안내' 사이클을 통해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정착되고 성공사례들이 나타나면 매칭을 확대해 나갈 것에 대비, 기업지원교육 과정을 신설해 직원을 일일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집적화, 체계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는데 접근하기 쉽도록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들과의 소통창구를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 전라북도에서 기업들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北 도발 분명한 대가 따를 것”

한미·한일 북핵대표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각각 유선협의를 가졌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이틀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1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후 한미일 외교장관이 뮌헨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연대·혼동할 없는 결의를 보여 주고, G7 외교장관 또한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결된 대응 의지를 표명했음을 상기하고, 북한이 이러한 경고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고 결국 북한은 자승자박의 결과에 직면하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어떤 구실로도 북한의 도발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 수석대표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양자·3자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독자 제재를 비롯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내 개인 4명 및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을 평가하고, 3국은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협상 복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수석대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뉴시스



정읍시의회, 신규 정책지원관 임용장 수여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는 의회의 정책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일 신규 채용한 정책지원관 5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인사발령을 시행했다.

지난 1월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공백경력경쟁 채용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신규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7급 공무원으로 의회사무국 임용정책 TF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며, 임기는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5년까지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조례 제·개정 및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 지원,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시의원의 시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등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회는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 중심의 교육과 정읍시 주요 사업장 방문 등 정책지원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과상도 50억 무죄, 유권무죄 전형”

민주 도당 청년위원회
“공정·상식 무너져”
법원 판결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들이 국민의힘 과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과 관련,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의 대한민국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과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면서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과 전 의원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6월 대학원 석사과정 중 아버지로 의심되는 화천대유 입사 이후 퇴직 시점 결혼에 의한 독립생계를 무효의 사유로 난 판결은 부실한 수사로 현 상황을 의도적으로 초래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이자 유권무죄의 전형을 보여주는 여타구니 없는 판결”이라며 “법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를 함부로 인정하고 공정과 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관계자들이 20일 전북지방법원 앞에서 '과상도 아들 50억 무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식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0억원은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노동자의 월급을 200년 간 모아야 하는 금액인데도 5년10개월 근무만 야 하는 금액으로 대리로 퇴사한 뒤 50억원의 퇴직금을 받는 것은 국민 모두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법치의 탈을 쓰고 사법사냥을 일삼는 검찰은 지극히라도 국민들, 특히 박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상식적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과 전 의원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과 전 의원에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뉴시스

전북도 특사경, 21~22일 공무원 대상 수사실무교육

27/10월)이다.

교육 내용은 △특사경의 이해 및 기본 수사체계 △현장 확인서 및 진술서 작성요령 △사서류 작성요령 △동영상 촬영 기법 등이며,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특히,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법무연수원 특사경 분야 교수, 서울지

법검찰청 수사경력 33년의 수사관 방송국 기자 등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했다.

하진 도민안전실장은 “전북 인재개발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수사실무교육을 통해 업무 담당자들이 체계적으로 수사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추진으로 사법경찰관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들의 수사 업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채익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이 전북을 찾아 정운천 의원(사진 오른쪽) 띄우기에 나섰다.

국힘 김도읍·이채익 등 전북 찾아... 정운천 띄우기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전주를 재선거 지원 의미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정 의원이 결정적 역할” 칭찬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채익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북을 찾아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띄우기에 나섰다.

20일 오후 김도읍 위원장과 이채익 전 위원장 성일중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은 전주를 재선거에 나선 정운천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맞춰 전주를 찾았다.

특히 김도읍 위원장과 이채익 전 위원장은 개소식에 앞서 전북도의회에서 정 의원을 한껏 치켜세웠다.

이들은 30여년 간 진행된 대부분의 시간을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정운천 의원의 공을 치하하는 시간으로 할애했다.

이채익 전 위원장은 “정운천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뛰어넘는 열정의 정치인”이라고 평한 후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과정에

서 일부 반발심리에도 지역 사랑에 대한 정 의원의 집념과 노력이 짧은 기간에 통과를 가능하게 했다”고 정 의원을 칭찬했다.

가장 친한 처형이 전북에 살고 있다고 밝힌 김도읍 위원장 역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를 먼저 시작하는 통에 전북이 반론과 함께 난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정운천 의원의 실적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후속 조치로서 중앙정부, 김관영 전북지사 등과 함께 잘 진행해서 명실상부한 자치도로서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도읍·이채익 두 전·현직 위원장은 4월 재선거와 관련, 공천과 여당 지도부 지원 여부 등의 질문에 대해 답을 미룬채 정운천 의원의 사무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정 의원 지역사무소는 전주 완산구 송곡개로 319 M메디컬센터 2층에 마련됐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